

공인회계사회 차기 회장 ‘다자구도’

# #최초 전자투표 #젊은 회계사 표심 #투표율 주목

내달 17일 정기총회서 전자투표  
젊은 회계사 관심사가 선거 이슈  
작년 투표율 30%... 참여율 증가 기대



(왼쪽부터)김영식 삼일회계법인 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채이배 의원,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황인태 중앙대 교수(가나다순)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공식 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강성원 회장과 현 최종경 회장이 선거 이전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아직까지 5~6명의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다자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회계업계에서는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학계에서는 이만우 고려대 교수와 황인태 중앙대 교수가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이달 말로 의원 임기를 끝내는 채이배 국회의원으로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10일 한공회에 따르면 다음달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후

보 등록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전자투표다.

정기총회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투표는 한공회 회관에 설치된 모니터는 물론 외부에서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전에는 현장투표만 가능했다.

사상 첫 전자투표에 전체 투표율 상승은 물론 젊은 회계사들의 참여가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 중 누가 이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에 따라 선거 판세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회계업계에서는 최종경 현 회장이 추

진한 회계제도 개혁을 잘 안착시킬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젊은 회계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처우개선이나 복지 등도 이번 선거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차기 회장 후보로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등이 꼽힌다.

김 회장은 오는 6월 임기 만료가 맞물린 데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 출신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 부회장은 현 한공회 직무부회장, 최 대표는 현 한공회 선출부회장인 만큼 기존 회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란 평가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제43대 회장 선거에서 경합을 벌인 경험이 있으며, 한국회계학회 회장을 지난 황인태 중앙대 교수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이배 의원은 공인회계사(CPA)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신의감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오는 29일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서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전자투표 실시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는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해 기탁금도 대폭 올랐다.

기탁금은 회장 입후보자는 5000만원, 부회장과 감사 입후보자는 2000만원이다. 지난 2016년 선거 당시 기탁금

은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이었다.

기탁금은 득표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아예 돌려받을 수 없다. 차기 한공회 회장 선거는 2만여명의 회계사에게 투표권이 있다.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빅4 소속이 3분의 1, 중소·중견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3분의 1 정도다. 나머지 3분의 1은 회계사 자격은 있지만 회계법인에서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선거에서는 총회 참석 방식이어서 투표율이 30%를 밑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자투표 방식이어서 투표율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빅4 회계법인이 해마다 CPA 합격자의 70%가량을 채용하는 만큼 빅4 후보자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선 20~30대 젊은층의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결과가 당일인 17일 공개되며, 회장이 취임식도 바로 열릴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美 세일업체 파산 위험... 금융기관 부도 우려

산업 전반 신용위험 크게 상승  
원유 생산중단 우려 심화  
美 중형銀 대출비중 20% 근접

사상 최저 수준의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세일업체들이 파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내년부터 대규모 부채 상황이 도래하면서 파산기업 수가 전례 없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의 부도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저유가 지속이 미 세일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세일업체들의 손익분기수준인 배럴당 50달러를 큰 폭 밑돌면서 세일업체들의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산업 전반의 신용위험

이 크게 상승했다.

한은은 "저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재고누중에 따른 저장능력 부족 등으로 생산중단기업이 확대되고,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파산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일업체 부실이 확대될 경우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도 위험 증대, 회사채 시장 내 신용경색 등으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유가 수준에서 다수의 기업들은 시추비용이 들지 않는 기존 유정을 통한 생산비용(배럴당 28달러 내외)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원유 저장고이자 WTI유 실물 인도지점인 쿠싱지역 재고 총유율이 4월 24일 기준 81%로 3개월 전(44%)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등 저장

시설 부족에 따른 생산중단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또 미국 대형은행의 에너지부문 대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일부 중형은행의 경우 대출비중이 20%에 근접하는 등 신용리스크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미 에너지부문 21개 기업이 투자자격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강등됐다. 유가 급락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미 에너지부문 투기등급 회사채 발행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은은 "현금 확보, 차환 등을 위한 세일기업들의 자금수요에도 불구하고 부실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주식,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이는 세일업체 부실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희주 기자 hj9@

## KB국민銀 “영상통화로 특정금전신탁 가입하세요”

비대면 활용, 제한적 신규 허용

KB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영상통화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특정금전신탁 가입은 영업점에서만 가능했지만 금융당국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영상통화를 활용한 제한적 신규를 허용했다.

KB국민은행은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가입이 가능하도록 '신탁비대면 센터'를 설립했다. 고객은 센터 내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탁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탁상품은 인덱스, 헬스케어, 게임테마, IT업종, 바이오 등 국내의 주식형 및 혼합형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 28종이다. 대면 상품 대비 0.2~0.3%포인트 인화된 보수가 적용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영상통화를 활용한 특정금전신탁 비대면 신규 론칭을 기념해 오는 7월 말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해당 기간 신탁상품 30만원 이상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255명에게 17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모바일 교환권을 증정한다.

관계자는 "향후 비대면을 통한 다양한 신탁상품 가입이 활성화돼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우리금융, 100억 규모 착한소비운동 동참

복리후생비, 시장상품권으로 지급

우리금융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직원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총 100억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구입해 착한소비 운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은 직원의 사기진작 및 체육·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분기당 일정 금액을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사용해 왔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전통시장 상품권등으로 지급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설명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오른쪽 첫번째)과 권광석 우리은행장(왼쪽 첫번째)이 서울 중구 소재 남대문시장에서 물품구매 후 박철복 남대문시장 남산상회 대표와 코로나19 극복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지난 8일 분사 인근에 소재한 남대문시장을 함께 방문해

시장 상인의 영업상황을 경청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용해 물품을 구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NH농협銀, 어버이날 맞아 후원금 전달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기업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동영상상영과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후원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는 이번 행사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자 합창 동영상에 참여하는 등 어르신들께 행복한 어버이날을 선사했다. /안상미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13년째 '말벗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행복센터 상담사가 매주 독거 어르신들께 전화로 불편사항을 확인한다.